

일반고는 출결만 반영 특목·자사고는 면접에서 질문하기도

일반고에 진학한다면 자유학기제 기간의 성적은 내신 산출에 반영되지 않고, 출결 사항만 평가 요소로 활용됩니다. 반면 특목·자사고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전형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기간에 기록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탐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체험,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이 골고루 진행됩니다. 정기시험이 없어 해당 학기 교과는 학생부에 이수 여부(P/F)을 표기하는 한편, 교과별로 학생의 활동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술형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또는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나 전국 단위 자율 학교는 자유학기제 평가 기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목·자사고 등 2단계에서 서류 기반 면접 평가를 시행하는 일부 학교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과 참여 태도, 진로 탐색 과정 등을 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외대부고 입학홍보부장 조경호 교사는 “중1이라는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서류 검토 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관심 분야를 찾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접에서 관련 질문을 하는 편이다. 학교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자유학기 프로그램도 많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을 성장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고입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현재 중1인 아이는
자유학기를 보내고 있어요.
고교에 진학할 때 자유학기제
기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도움말 조경호 교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